

전주시,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농업현장 중심 맞춤형 기술 보급 추진

전주농기센터, 차세대 영농인 육성·농가 경영안정 돕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총 40억원 투입... 실시간으로 신호 제어해 정체 최소화·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부여

전주시가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바꿔 정체를 줄이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등 똑똑한 신호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국비 24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ITS)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축된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신호를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 교차로 CCTV 영상과 노면 기지국 등에서 수집된 교통량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날짜·시간대별 최적의 신호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신호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특히 경찰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도 갖춰져 긴급 상황 시 현장 도착 시간을 최소화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가 적은 교차로에는 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교통정체가 빚어지면 안내전광판을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게 된다.



전주시가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바꿔 정체를 줄이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등 똑똑한 신호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동부대로와 은고로, 백제대로, 봉주팔썩로, 효자로 등 사업구간 검토를 마친 뒤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월부터 스마트 교차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흐름 관계시스템과 신호 S/W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과 주요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

론 긴급차량에는 우선 신호를 부여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풍남학사 신규 입학생 35명 모집

18~31일까지 전주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대상

전주시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전주 출신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주풍남학사 신규 입학생 35명을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구기동)에 있는 전주풍남학사는 입사등록비 7만원과 매월 15만원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여학생 18명과 남학생 17명(남·여 장애인 각 1명 포함)이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정규대학에 진학한 전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보호자가 공고일(1월 4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학업성적(50점)과 생활정도(50점) 등을 심사한 뒤 입학생을 선발할

방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희망자는 전주풍남학사에 방문하거나 이메일(69252881@hanmail.net),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02-6925-2882)로 문의하면 된다. 입학생은 다음 달 15일 전주시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풍남학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의 4개 동으로 1일 3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체육관, 도서관, 세탁실, PC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2인 1실의 시설로 책상과 침대, 옷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기 등이 완비돼 있다.

/김윤상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하세요”

전주시, 2월 26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자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가 가사노동에 지친 여성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생생카드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학습 활동과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다.

이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연간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의료기관 및 유휴,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37개 업종으로 사용처가 제한됐으나 올해는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주거·산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24세 기혼 여성과 만 25~74세 여성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임부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단,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회사 상근 직원 등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생생카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생생카드는 올 연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생생카드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고단한 영농으로 힘든 여성농업인들이 삶의 여유를 찾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예술 있는 승강장’ 탈바꿈

전주시, 전북대 인근 농협·덕진성당 앞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전북대학교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예술적인 승강장으로 변신했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인근 농협 앞과 덕진성당 앞 기린대로변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역 예술가가 아름답게 꾸민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개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예술 있는 승강장은 기존 획일적인 형태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 색다른 볼거리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총 47개소가 조성됐다.

이번에 설치된 2개소는 주요 환승 승강장으로, 평소 전북대 학생 등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전북대학교 인근 농협 앞 승강장의 경우 박창은 작가가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디자인했다. 덕진성당 앞 승강장은 한주연 작가가 동지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간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승강장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발열의자 ▲에어커튼 ▲장애인알림벨 ▲BT(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덕일초등학교 앞과 기린대로 병무청 앞 승강장도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넘어 편의성, 기능성, 예술성까지 겸비한 공간으로 만들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질 수 있는 공간이자 도시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